

“AI가 판 바꿨다”... 반도체 시장, 새로운 게임 체인저 부상

AI 도입에 따른 업계 성과 격차
AMD, AI 데이터센터 매출 2배 성장
SK하이닉스, AI 메모리 부문 성과
삼성, AI 대응 미흡으로 매출 하락
인텔, AI 반도체 생태계 진입 부진

인공지능(AI)이 또다시 반도체 기업의 희비를 가르며 ‘AI 거품론’을 불식시켰다.

국내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I 생태계에 빠르게 올라탄 기업들이 시장전망치에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놓았다. 반면 AI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저조한 성과를 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서 AI 관련 사업의 성장 여부를 바탕으로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I 열풍에 올라탄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DALL-E 이미지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AMD는 AI 반도체 사업부문과 아닌 부문의 매출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AMD는 이번 3분기 매출 68억2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0.9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I와 관련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은 2분기 연속으로 2배 성장해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5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만 게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68% 감소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MD는 이달 초 공개한 새 AI칩 MI325X가 오는 4분기와 2025년 상반기까지 매출 성장을 큰 폭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리사 수 AMD CEO는 “MI325X 공개 후 고객 및 파트너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분기 중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우리 기업을 또한 AI 수요에 큰 수혜를 입었다.

지난 24일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 성장을 토대로 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분기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했다.

한미반도체 또한 HBM용 TC본더를 바탕으로 올 3분기 매출액 2085억원, 영업이익 99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 본더의 본격 납품과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HBM TC 본더 전용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반도체 시장에서 AI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의 성과는 처참하다.

올해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실패한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반도체(DS) 부문 실적이 추락하며 경영진이 실적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올 2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선보였으나 4분기에 접어들 현재까지도 납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는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을 내며 “반도체 생산의 패러다임이 D램 같은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다품종 맞춤형 생산으로 변했으나 삼성전자가 흐름을 놓쳤지만 SK하이닉스는 흐름의 변화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재편과 각 기업의 희비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배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텔은 대표적으로 AI 경쟁력을 잃으며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다. 인텔은 2분기 AI 생태계에 올라타지 못하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시가총액으로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렸다. 인텔은 여전히 수요가 낮은 CPU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문제로 지적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범용 제품 수요 부진 등으로 반도체 조기 겨울론이 제기됐지만 AI 반도체 수요의 중심에 있는 주요기업들이 뜨거운 여름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통신사, 일반 기업, 서버(Sovereign)·주권 AI 수요 등을 감안할 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는 2025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15th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18th Busan Fireworks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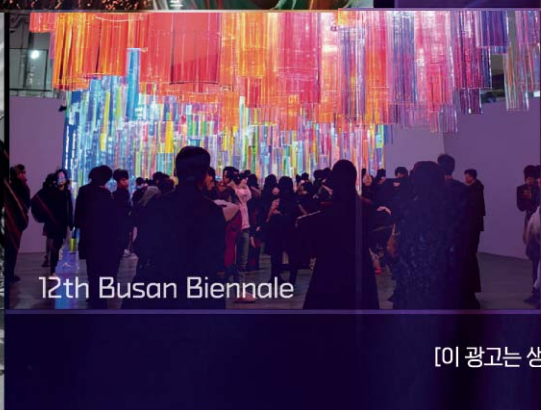
29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2th Busan Comedy Festival



25th Busan Rock Festival



12th Busan Biennale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AI·클라우드가 성패 갈랐다 구글 웃고, 애플·아마존 울상

이번주 빅테크 3분기 실적 발표
구글, 클라우드 매출 35% 성장
애플·아마존, 아이폰·AWS 부진

이번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필두로 애플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거 발표된다. 이번 실적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사업 진행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클라우드 성적을 통해 향후 전망치와 함께 AI에 대한 투자 규모와 산업 성장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알파벳, MS, 메타, 아마존 모두 AI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비판론을 잠재우고 호실적을 발표한 반면 애플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 비판론 잠재운 호실적 공개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5개 빅테크 기업이 7~9월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30일에는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실적을 발표했고, 하루 뒤인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먼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29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 882억7000만 달러(약 122조원), 주당 순이익 2.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863달러를 넘어서는 성적이며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85달러를 상회했다. 성장을 이끈 건 클라우드 부문이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은 35% 증가한 113억 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9% 증가했다.

◆애플, 아마존 실적 '관건'

메타는 30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온라인 광고 사업과 AI 투자 규모 외에 AI 관련 사업 확장 여부가 관건이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한다. 아이폰16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AI를 적용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성적이 전체 실적을 좌지우지 할 전망이다.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16 출시 첫 주 판매량은 3700만대로 전작 대비 12.7% 줄어든 규모다.

아마존도 애플과 같은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주력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매출과 AI 투자 및 사업 확장 전망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경영진의 판매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아마존에 대해선 “아마존의 마진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진한 3분기 실적과 함께 급격한 매도세가 연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